

제 223 호

사순 제 1 주일

1977. 2. 27.

숲 정 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법석규
주 간	조성상
편 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 감론 □



멋 장 이 예수님

강 덕 창 신부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멋있고 진실하게 살아보고자 노력합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 중의 한 분이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멋진 일면을 다 함께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성년(成年)의 되자 죄와 고통의 세상에서 인간이 구원될 수 있는 심오한 진리를 깨우치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황량한 광야에 들어가서 홀로 명상과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빵과 돈, 권력과 명예, 지식과 명성 등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분의 맘에 드는 방법이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분은 그치지 않고 먹고 마시지조차 잊어버리시고 오직 인간을 해방하는 방법을 찾는에만 골몰해 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마음은 착잡해지고 몸은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진리에도 향한 열정은 그칠 줄 모르고 불타 올랐습니다.

이렇게 거의 사십주야가 지나가고 심한 내적갈등과 투쟁 끝에 드디어 승리의 날이 왔습니다. 이 세상과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은 빵도, 돈도, 폭력도, 권세도, 명예도, 명성도 아니고 오직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은 평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예수님은 바위틈에 맺힌 물방울이슬로 입술을 추기신 후, 성령으로 가득차서 광야를 떠나셨고 그 후 사랑의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교훈은, 끝없는 갈망과 기도 및 자기투쟁 끝에서야 비로소 하느님의 귀한 선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참된 것을 끝없이 갈망하는 자에게는 신앙의 문이 열리고 평화와 사랑을 하느님께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평화와 사랑, 이것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곧 신(神)적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느님과 인간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으며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느님의 선물인 평화와 사랑으로 자신과 인간을 고통과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죽음의 장벽을 뚫고 "실재(實在)하는 모든 것"이신 하느님안에 살아계실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진리에 대한 한없는 투쟁, 하느님의 뜻에 대한 확신, 죽기까지 실천, 이 세가지를 멋지게 완수하셨습니다.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인생도 멋진 인생이 될 것이며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김계 전주교회 보좌신부)



신 용 협 동 조 합

1960년 한국에 도입된 신용협동조합 운동은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의 공포로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오늘날까지 장족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간 신탁은 눈치한 은행문턱을 넘지 못하던 많은 분들에게 꽤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어려움을 이겨냈고, 또 협동하고 저축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것도 체실했다.

한 외국 수녀가 도입해온 이 운동이 처음에는 성당의 조그마한 한 모퉁이에서, 또는 사랑방에서 시작되었다가 이제는 필요에 따라 넓은 사무실도 갖게 되었다. 자금도 불어나게 되었다. 직원의 숫자도 늘게 되었다.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운동임을 실감하게 되었다. 얼마나 장한 일인가? 하지만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다시 한번 신탁의 모습을 살펴 보아야 한다. 마칠 정기총회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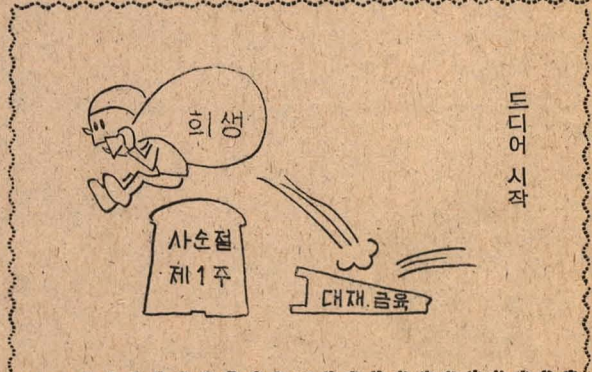
신탁은 정말로 「만인은 일인을 위하고, 일인은 만인을 위한」 신탁의 구실을 다해내고 있는가?

혹시라도 신탁이 은행으로서의 구실만을 해내고 있지는 않는가? 신탁이 조합원에게 저축과 대부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만이 그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과반수가 꼭 민주적이라고 착각하는 잘못은 범하고 있지 않는가?

탄자니아의 한 농부의 말을 들어보자. -「이제야 우리는 쉼터에 도달하였다. 우리들 가난한 사람들은 빌린 돈을 늘 두배로 갚아왔다. 너무나 목이 타서 그러한 조건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바야흐로 이 땅에 쉼터가 나타났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빌려 쓴다는 것은 합당한 비용을 내고 우리의 이웃과 함께 물을 마시는 것이 된다. 이러한 기회가 온것을 우리는 감사해야하며 잘 활용해야 한다.」

숲 정 이 산책





전 세계 교회에 보내는 교황 바오로 6세의 1977년 사순절 메시지

친애하올 교형자매 여러분!

사순절은 은총의 시기입니다. 전례는 사순절이 빠스카의 신비를 준비하는 기꺼운 때임을 알려줍니다. 물론 사순절은 겸소하고 엄숙한 생활을 해야하는 시기이지만 또한 풍성하게 영혼의 열매를 맺게하는 유익한 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잠자는 양심을 일깨워야하고 진정한 크리스찬 생활의 요구에 행동으로 응답하기 위하여 우리의 원의와 의무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10년전에 발표한 「민족들의 발전 촉진에 관한 회칙」은 크리스찬 공동체와 선의의 모든이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외치는 애절한 호소”였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그때의 진지한 호소를 다시 한번 외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굶주리며,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없고, 비탄의 고독속에 버려진 상처받은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의 목자인 나의 가슴은 격동에 찢기고 있습니다.

불의에 찬 세상의 불평등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칙의 선언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총을 나누어주는 하느님의 일꾼임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순절의 보속은 다만 내적이고 개인적이어서는 아니되며 동시에 외적이고, 사회적이어야 합니다.”(전례현장 10?)

가서 굶주리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불쌍한 나자모를 만나 보시고 그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를 따듯이 맞이하시는 그리스도의 눈을 여러분의 눈에서 알아 보게 하고, 은총을 나누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의 손에서 느끼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 나라의 교회가 부르짖는 사순절의 호소에 너그러이 호응하십시오. 그럼으로써 버려진 사람들을 구제하고 배양된 민족들의 발전에 여러분의 뜻을 다 하십시오.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사도행전 20장 35절)고 주께서 하신 말씀은 사도 바오로께서 우리에게 잘 기억하도록 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친애하올 교형자매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하여 다가오는 부활축일을 기꺼이 맞이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외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보냅니다. 아멘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김영구 신부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 받을 터이니.”(마태오 5, 4)

「에 통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말씀은 얼른 들을 때는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역리적(逆理的)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슬픔 자체를 복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는 슬픔도 복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슬픔을 통하여 인생과 우주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된 사례가 많습니 다. <천로역정(天路歷程)>을 쓴 빈언 (John Bunyan, 영국인)이 젊어서 군대생활을 할 때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급한 불일로 잠간 동료에게 자리를 맡겼다가 돌아와보니 동료는 적에게 사살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대신 죽은 친구의 죽음앞에 말할 수 없는 애통을 통해서 그는 인생의 깊은 뜻을 더욱 탐구하게 되고 깊은 신앙에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슬픔을 통해서, 사선(死線)을 넘을 때, 인간은 인간의 깊은 뜻을 알게 되고 인간은 단순히 육체만이 아닌 불멸의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낮에는 밝아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멀리서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해가 지고 밤이 될 때에 하늘 멀리 우주 끝에 있는 별을 바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신령하고 가장 신비로운 하늘나라는 인간이 만든 렌즈를 통해서만 볼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의 렌즈를 통해서만 하늘나라의 신비를 자세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자기의 잘못을 애 통히 회개하는 자만이 행복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잘못을 느낀 통곡(마태오 26, 69-75)이나 행실이 나쁜 여인이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은(루카 7, 36-50) 성경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을 뜻합니까? 애 통은 죄사함을 가져와 구원을 얻는 유일의 길입니다.

그리고 한결을 더 나아가 남의 애 통에 같이 애 통할 줄 아는 사람은 더욱 행복합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애 통해 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태오 23, 37-39)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인간의 죄를 자기의 죄로 지시고 애 통하는 심정의 역사적 표현인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들도 자기를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곧 다른 사람의 죄와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나를 따르라고 외치십니다. “애 통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남의 슬픔에 참여함으로써 참된 하느님의 권속이 됩니다.

* 축 스타사장 개업 10주년 *

항상 하느님과 교형 자매들의 사랑에 감사드리는 정으로 사는 장 바오로가 스타사장의 문을 연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아껴주십시오.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1977년 3월 1일

장 남 수 (바오로) 올림

*전주시 고사동 (역전 오거리-동아여관 앞) 전화 ⑥ 6094



1977년 사순절 주교단 사목교서

- ...화해와 일치 를 위하여 내적이고 개인적인 보속뿐만이 아니라,
- ...동시에 외적이고 사회적이며 공동체적인 보속이 요청되는 이 때,
- ...더욱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여러분께 권고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영광스런 부활의 승리를 준비하는 사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사순절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을 화해시키시려고 스스로 사람이 되시어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잡히사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대속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자들이 기도와 보속과 사랑을 실천하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사순절 기간동안 모든 신자들은 새로이 신앙을 가다듬고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모든 인간형제들과 사랑의 화해를 이룩하고 나아가서는 하느님 아버지와 사랑의 일치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적이고 개인적인 보속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외적이고 사회적이며 공동체적인 보속이 요청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보속은 현재와 같은 사회 상황하에서 더욱 필요하고도 긴급한 것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다단한 현대문명 속에서 합리주의와 편의주의가 신앙속에서까지 침투됨으로써 보속, 극기와 같은 성덕의 개념이 희미하여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인류 공동체적인 연대감이 팽배하여지고 있는 현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만은 아직도 소극적이고 개인적인 신심만이 신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 많고 좋은 일이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주교단에서는 금년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년과 달리 더욱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여러분께 권고하는 바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 도처에 험벗고, 굶주리고, 목말라하며, 병고에 신음하는 형제가 많다는 것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여야 할 우리 그리스도자들에게 깊은 반성의 재료가 되며 그 일단의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분명히 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란 것도 자각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한국교회의 사목을 책임 맡은 우리는 한국교회 전체가 사순절 기간 동안 다음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첫째, 금년 사순절 제3주 금요일 (3월 18일에)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자는 공동 보속의 의미로 단식재를 지킬 것

둘째, 단식재를 지킨 그 몫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에 헌납할 것.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크나큰 사랑에 감사하고 다가올 영광과 승리의 부활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 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의 수요일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요십이 (187) 큰병오



꽃상여, 입관, 입관부속 일체
최 씨 관 집

☆교우들에게 특별염가 봉사☆
전주 남부시장 B동 87호
최 병 화 (그레고리오)
☎ ② 5 2 1 6

☆ 개업안내 ☆

어린이부터 대학생, 일반인까지
필요한 각종 교재, 참고서 등
서적 일반 취급

삼 북 서 점

김 성 기 (자카리아)

□장소: 대성학원 옆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앞 교우점으로!

미성당 시계점

장 금 태 (방지거)

전화 ③3301 (자택 ③8548)

각종 페인트·지물
비닐 장판·표구재료·확선지

K.S 사슴표 페인트 대리점

대 동 지 업 사

임 정 원 (도민교)

□전주시 풍남동 1가 17(동문사거리)

☎ ② 5 9 8 6 · ② 2 7 6 5

지업부: 벽지, 장판, 각종 비너루
문방구: 학용품, 사무용품
완구부: 보행기, 어린이 장난감 일체

동 아 상 회

※교우 특별우대, 많이 찾아주세요!

장 경 압 (레오)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주장 옆)

전화 1 0 6 번

경향잡지, 소년도 취급 합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는
가톨릭 센터로 연락하세요

가 틀 리 시 보

전주지사장 범 식 규 신부

주재 기자 한 상 갑 (바오로)

수 금 원 범 덕 배 (머또)

□전주시 서노송동601, 가톨릭 센터 (③3498)



1. 사순절 임니다 뜻깊게 보냅니다.
 - ① 교황 사순절 메시지, 한국 주교단 사순절 사목교서 발표
 - 각 본당과 공소에서 이를 낭독하고 그 뜻을 주지 하십시오(3월 4일<대보름> 금요일에는 관련 되었음)
 - ② 사제양성 후원을 위해 각 가정에 나누어 드리는 패지 저금통등 정성을 모아 봉헌합니다.
2. 공소회장 연수회(3월 2일(수) 오후 3시-4일(일), 가톨릭 센터)
3. 군산 팔마 성당(前 중동 성당) 낙성석 겸 박성운 주임 신부 회갑연(3월 1일 오후 2시) 개별 통지 생략
 - ※ 새 주소...우편 번호 511) 군산시 경장동 463의 9 <전화 2623> ※ 주례...교황대사 도세나 대주교
4. 중·고등 연합회 정기총회(3월 13일(일) 오전 10시, 가톨릭 센터)
5. 금주의 방송 안내(서해방송, 매일 밤 11시 30분, 「사색의 오솔길」, 이태주 신부 방송)
6. 여성 꾸르실로 1·2·3차 동창회: 3월 13일(일)예정, 성심학교
- . 교구인사 부안주임...김정원 신부, 이리 주현동 주임...안용기 신부, 공군 입대(3월 2일)...양재철 신부
- . 지정환 신부님은 격정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교우들에게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상태는 악화되지 않고, 많이 걸을 수는 없으나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중양)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서 울 북
보좌 신부 보 좌 김 진 석
사도 회장 사 도 이 북

1. 토요일 미사시간 변경: 오후 7시
2. 성심 부녀회 월례회: 3월 4일(금) 10시 미사 후
3. 성당에서 신자들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4. 교무금 속히 납부합니다
5. 주일 봉헌금: 110,965원
6. 구정 합동 위령미사 예물: 150,540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보 좌 권 용 희
사도 회장 사 도 박 증 용

1. 제 3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5개 공소 순회: 오늘 오후 신부님, 사도회장님 재경부장님 수고하시겠습니다.
3. 학생회 정기총회: 공식미사 후 <신임 지도자: 박오한(병숙)>
4. 특별 강연: 3월 4일(금) 오후 7시 반
강사: 김 규승님 (성심여고 교장), 주제: 어린이와 어른 ※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5. 사제 양성 후원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 증 근
사도 회장 사 도 김 용 환

1. 본당 확인지도: 3월 6일, 사도회 임원, 구역장, 공소회장, 반장님은 9시 반까지 참석 바람
※ 교우 연수회: 오후 1시부터, 전 교우 참석 바람
2. 견진 성사: 3월 20일 영재증명서 지참하여 사무실에 접수 바람, 교리-3월 1~4일
3. 공소 방문(판공결): 대동리(8~10일), 동산촌(10~11일), 전당리(14~16일), 미산리(16~18일)
4. 본당 판공성사: 송천: 팔복(3월 29일), 덕진(30일) 금암(31일), 직장인·학생(4월 2~3일)
5. 본당·공소 합동교리: 3월 18~19일 오후 7시
6. 교리교사 가정방문: 28일 10~16시
7. 구정 합동미사 예물: 69,170원
8. 주일 봉헌금: 64,430원

(복자) 전화 ⑤5238 주임 신부 김 증 길
사도 회장 사 도 조 성 호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사제양성 후원 사업에 적극 참여합니다.
※ 사순절을 맞아 속죄의 뜻으로 성마를 모읍시다.
3. 교리교사 연수회: 4박 5일간 성공리에 마치었음.
4. 주일 봉헌금: 30,310원
※ 일주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필요한 은총을 청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레 봉헌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험 택
사도 회장 사 도 박 장 준

1. 재의 예식: 사순 제 1주(오늘) 공식미사 중
2. 축! 영명 미사: 3월 4일 오전 6시 반
※ 많은 신도 참여하여 축하합니다.
3. 주일학교 개학: 3월 5일 오후 4시
4. 주일학교 교사 명단: 유치반-전영신(베로니카), 1학년-김영신(비비안나), 2학년-원상문(가브리엘) 최경애(제마), 3학년-김진호(스페타노), 유민승(요안나), 4학년-최주원(시몬), 김진숙(세레나), 5학년-강진산(베드로), 6학년-유혜미(마리아), 신부님
5. 도장 공사비: 미납자 속히 완납합니다.
6. 하느님께 약속한 교무금 완납하여 어려운 본당 도움입니다.
7. 사순절을 맞아 속죄의 뜻으로 사제양성 후원 기금 마련에 노력합니다.

(숲정이) 전화 ⑦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사 도 전 종 근

1. 사도회 월례회: 3월 6일 공식미사 후
2. 교우님들 교적있는 본당에서 미사 참례합니다.
3. 은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 십사처 상본 기증 예약 (익명)
※ 종 회사 (익명)
※ 유치원에 피아노 1대 회사 (오 헤레나 여자)
4. 주일 봉헌금: 87,575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보 좌 함 기 윤
사도 회장 사 도 김 유 석

1. 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 1시 반
2. 효자동 성당김립 추진위원회: 3월 3일(목) 오후 7시 반. 정심 유치원(조대 신부님-정요셉: 마리아 빨리 전국 지도신부)
3. 예비자 교리: 주일 10시(학생), 11시(일반) 수(짧은 남녀) 금(성인 남녀)
4. 사제양성 후원사업: 패지를 '살찌게' 먹입니다.
5. 신용조합 신 임원 명단
이사장-한수옥(제임), 부이사장-장준수(제임)
6. 전동성당 관할 밖의 신자는 교적 이전 하시오.
7. 토요일 미사: 오후 5시 치명자산
8. 미사시간 변경: 아침 미사 6시, 저녁 미사 7시 반
9. 주일 봉헌금: 134,030원